정부, 바이오 산업 3.5조 투입

2025년까지 일자리 12만개 만든다

연내 바이오 기반 신규 일자리
3년전 比 77% 증가한 4.6만개
R&D에 3조1290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바이오 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를 3년 전보다 77% 많은 4만6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부처는 8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연말까지 바이오 기술 기반 일자리를 4만6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만6000개와 비교하면 2만 개(77%)가 급증한 규모로 정부는 2025년까지 바이오 기반 일자리를 총 12만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2015년 1.7%인 세계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올해 2.3%로 높인 뒤 2025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글로벌 기술 수출액도 2015년 5억2200만 달러에서 올해 8억5800만 달러, 2025년 27억3200만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2015년 7166건이던 바이오 연구개발(R&D)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건수는 올해 7968건, 2025년 1만 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보다 5.1% 늘어난 3조5778억원을 생명공학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R&D에 5.6% 증가한 3조1290억원을, 인프라와 인력양성에 각각 1721억원과 276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R&D 중 유전자 교정 기술인 '유전자 가위', 미생물에 새 기능을 부여하는 '합성생물학', 미생물을 산업에 활용하는 '유용미생물' 등 9개 과제에 총 45억원을 투자한다. 치매 예방 R&D에는 작년의 2배인 97억원이 투자되며 국가 치매극복 기술에는 7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감염병과 줄기세포 R&D에는 각각 249억원과 352억원이 책정됐다.

농작용 자율비행 드론 개발에 9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중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도 추진된다.

글로벌 수준의 백신제조시설 구축에 282억원,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확충에 134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산업 성장 추이를 고려해 올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과거에는 투자 성과가 미미했지만 최근에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고 신생 벤처기업도 급증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청호나이스 이석호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하이브리드 얼음정수기 도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 中 이어 베트남 진출 '글로벌 환경가전기업' 도약 시동

지난해 중국 매출 1700억 '안착'
"렌탈사업 강화·'매각설' 사실무근"

청호나이스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추가 공략을 통해 글로벌 환경가전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회사 매각설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호나이스 이석호 대표는 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심으로 교민에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유통대리점을 통해 현지 고객층도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렌탈방식의 판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는 12년째 공을 들인 중국에서만 지난해 17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중국의 대형 가전기업인 메이디의 유통망을 활용해 안착을 시도했고, 필터 생산공장과 정수기 생산공장에 각각 60%, 40%의 지분을 투자, 현지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결과다.

렌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판매 제품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8조원 규모인 렌탈 시장은 2020년 4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과 공기 관련 제품 외에도 매트리스를 비롯해 이달 중에는 안마의자도 새로 렌탈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셀트리온 실적 순항… 1분기 영업익 1165억

전년 동기 대비 30.3%↑
램시마 글로벌 판매 증가 견인

셀트리온은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6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늘어났다.

셀트리온 측은 자가면역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의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 및 미국 시장 판매 증가, 지난해 4월 유럽에서 판매에 돌입한 혈액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1분기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각각 52%와 23%를 차지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25%는 의약품위탁생산(CMO) 매출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수익성 증대의 배경으로 램시마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트룩시마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의 변화와 수율 개선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매출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꼽았다.

한편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2017년 말 5579억원에서 2018년 1분기 말 6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순차입금은 83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감소해 현금성 자산의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를 통해 재무안정성도 더욱 높아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1분기는 종합독감 인플루엔자 항체 신약 CT-P27 임상비용 및 트룩시마, 허쥬마의 특허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판매관리비가 증가했다"며 "5월 초 허쥬마의 유럽 판매 돌입으로 퍼스트무버 3개 제품을 통한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트룩시마가 퍼스트무버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한미약품 관절염약 '히알루마' 美 시판 획득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관절염치료제 '히알루마' 주사제의 미국 FDA 시판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히알루마'는 한미약품이 첨단 발효공학 기술을 이용해 자체 생산한 고분자 히알루론산 주사제로, 관절 부위에 직접 투여하는 제품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FDA 시판허가를 기점으로 파트너사인 테바 사와 함께 미국 전역 판매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테바는 히알루마의 미국 시판허가를 위해 미국 현지 환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으며, 한미약품은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히알루마 생산 공장에 대한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한미약품은 당초 2014년 미국 제네릭 1위 제약기업 악타비스(Actavis)와 히알루마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악타비스가 2016년 8월 테바에 인수합병되면서 히알루마 파트너사가 테바로 변경됐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듀오백 '체험형 헬스케어' 전문점 리얼컴포트 가맹사업 개시

듀오백은 경기 하남 스타필드와 충북 청주에 각각 리얼컴포트를 새로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리얼컴포트는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체어, 기능성 베게, 건강식품 등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리얼컴포트는 2014년부터 체험형 헬스케어 전문 편집숍이라는 콘셉트로 경기 일산 탄현에 1호점을 오픈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 17개 매장을 직영점 중심으로 오픈했다.

또 지난 3월엔 가맹사업에 대한 공정위 등록을 끝내 가맹점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한 청주점도 지역에서 대형 가구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 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신속한 상담과 2주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게 됐다.

리얼컴포트 안홍모 본부장은 "리얼컴포트는 소자본으로도 오픈이 가능해 안정적 수익 창출을 원하면 가맹점 사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5월 말에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GC녹십자 임직원들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본사에서 'GC 원데이 클래스'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GC녹십자

GC녹십자 임직원 대상 '원데이 클래스' 진행

GC녹십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GC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GC 원데이 클래스'는 임직원들이 평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회사가 마련해주는 수업이다. 특히, 임직원들이 매달 달라지는 주제를 선택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데다 관심사도 공유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첫 번째 'GC 원데이 클래스'는 유아체육 전문가 김도연 어린이 놀이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0분 놀이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수업에서는 수건을 공으로 만들어 하는 농구와 축구는 물론, 페트병 야구와 옷걸이 배드민턴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물건을 운동 도구로 만들어 놀이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수업에 참가한 이성근 GC녹십자 대리는 "거창하게 놀이공원을 가는 것만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스킨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이를 키우는 동료 직원들과 육아 고민과 노하우 등도 공유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소통도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여성·통증 과민 환자, 수근관증후군 수술 후 기둥통 더 심해"

여성과 수술 전 통증에 오래 노출돼 과민해진 환자가 수근관증후군 수술 후 기둥통을 더 잘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수근관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도 불리며 손목 한가운데의 수근관 중앙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기둥통이란 손목 심부의 통증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더 심해지는 통증을 의미하며 수근관증후군 수술(수근관 유리술) 후 특히 잘 나타난다.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노영학 교수(사진)는 131명의 개방적 수근관 유리술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통증에 대한 민감도와 수술 후 기둥통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노 교수는 이 연구에서 수술 전 환자의 성별과 전완부의 압력 통증에 대한 민감도와 일상 활동에서 경험하는 통증 정도를 평가하는 통증 민감도 설문지를 이용해 수치화하고 수술 후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째마다 기둥통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수근관 유리술 후 3개월 째 기둥통의 심한 정도는 압력 통증에 민감하고 자가 통증 설문 점수가 높은 것과 상관있었으며, 6개월 째에는 자가 통증 설문 점수가 높은 것에만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3개월, 6개월째 모두 기둥통이 심했다. 그러나 12개월째에는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인웅 기자